



# 우리나라, 2026년 제4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참석

- 우리나라, 2027년 제4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 개최 예정 -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우리 정부는 2026.5.11.(월)-5.21.(목) 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및 제28차 환경보호위원회(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참석하여 ▲남극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관광 및 비정부 활동, ▲과학연구 협력 등 남극조약체제 내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정기용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정부대표가 제4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부의장직 수임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1989년 남극조약협약당사국\* 지위를 획득한 이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하며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제27차 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극지연구소 김지희 책임연구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남극 거버넌스에서 실질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ATCM 당사국은 협의당사국과 비협의당사국으로 구성되며, 협의당사국은 ATCM 내 의결권을 보유

-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극 연구 기여 필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세종기지 인근 영구동토층 변화 양상, ▲남극 내 미세플라스틱 축적 현황 등에 대해 문서를 제출발표하고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 상황을 공유하며 당사국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황제펭귄의 특별 보호종 지정, ▲협의당사국 확대(캐나다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제4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를 2027.5.17.(월)-5.27.(목)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1995년 제19차 회의 개최 이후 32년 만의 우리나라 주최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남극조약협약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 증진,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외교부	책임자	과장	정소현	02-2100-7530
	국제법규과	담당자	행정관	김현조	02-2100-7891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장	이민석	051-773-5240
	해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헌	051-773-618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장	최한창	044-201-6971
	국제환경개발협약팀	담당자	사무관	오지혜	044-201-6977



**1.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중심으로 하여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환경·해양·광물 등 각 분야별로 체결한 5개 조약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레짐을 형성

**관련 조약(우리나라 가입순)**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85.4. 가입)
- 남극조약('86.11. 가입)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획득('89.10.)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98.1. 가입)
- 물개보존협약('72.2. 채택, 한국 미가입)
- 남극광물자원활동 규율에 관한 협약('88.6. 채택, 미발효)

**2.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 가입국(58개) 중 협의당사국 29개국으로 구성된 연례협의체로, 남극 정책 및 남극조약 이행에 관해 논의하며, 환경보호위원회(CEP), 법제도·운영·과학·관광 작업반 회의 개최

**남극조약 가입국(58개국)**

- **남극조약협의당사국(29개국)** : 남극조약 원서명국 12개국 및 협의당사국 자격 조건(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원정대 파견 등 과학연구활동 수행 국가)을 갖춘 국가
  - 미국(수탁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 영국(이상 원서명국),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체코, 에콰도르, 핀란드,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 **비협의당사국(29개국)**
  -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북한, 말레이시아, 모나코, 몽골,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산마리노, UAE, 사우디아라비아

**3. 환경보호위원회(CEP: the 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the Madrid Protocol)를 비준한 42개국 대표들의 협의체로, 의정서 준수와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ATCM에 제공하는 자문기구 역할 수행

※ 현재 구성: 의장 - 뉴질랜드 / 수석 부의장 - 벨기에 / 차석 부의장 - 한국. 끝.